

# 제 6 편

# 종 교



# 제 1 장 불 교

진 옥 (석천사 주지)

## 제1절 보조국사 이전의 불교

여수 불교는 흥국사를 개창한 보조국사 이전 불교와 보조국사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임란 이후부터 근 현대에 이르는 불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보조국사 이후의 역사이나, 주변 정황과 향일암 등의 연기를 살펴보면 보조국사 이전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한국 불교의 공식 도래는 372년 고구려부터이나 우리나라 불교 도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삼국 이전 고대에는 부족이나 씨족국가 형식이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형태와 시기 등도 매우 다양했다. 백제시대 법성포의 마라난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바다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육지 또는 인도 불교가 직접 들어오기도 하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다.

여수 불교의 최초 도래는 가야의 김수로왕과 허왕후에게서 찾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허왕후는 인도의 타밀족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서 그의 오빠인 장유스님과 함께 불상, 탑, 경을 싣고 시집은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장유스님이 기거했던 지명도 지금 김해 장유이며, 칠불 역시 허왕후와 김수로의 7명의 왕자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수행했던 곳이다.

남해 보리암 역시 이들의 수행과 교화도량이었음이 남해 보리암 불상과 석탑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남해 보리암에서 뱃길로 지척인 향일암은 가야 불교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라의 부설거사가 수행했다는 전설, 원효수행 전설이 있으며 그보다도 인도 아유타국의 타밀족은 인도남부의 바닷가에 주로 살므로 남해 관세음 신앙이 성행했던 곳이다.

이곳 남해바다와 해안의 고도는 자연의 동질성과 신앙적인 동질성이 보인다. 따라서 향일암, 보리암, 칠불암 그리고 김해 장유와 허왕후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제2절 보조국사와 여수 불교

보조국사(1158~1210)는 고려 중기에 태어났다. 우리 민족사에 큰 스승을 뽑으려면 서슴지 않고 신라의 원효와 고려의 보조국사, 그리고 조선의 서산 대사를 말하는 것이 대다수 후학들의 견해이다. 그만큼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분이라는 뜻이다.

보조국사는 황해도 서흥에서 대학자인 정광우의 아들로 태어나, 8살에 출가하여 경학을 배우고, 승과고시에 합격하고 25세에 전국 고승들이 모이는 보계사 담선법회에서 수행결심을 크게 하고 평창 청원사에서부터 결사했다.

28세가 되던 해에 하가산 보문사에서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보다가 크게 깨달고 팔공산 거조암에서 10여 년간 후학을 교화 하다가 1195년 흥국사를 창건, 송광사로 옮겨 후학을 지도, 1210년 입적하였다.

그의 깨달음과 교화는 고려의 쇠잔한 국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

며, 16국사를 배출했다

보조국사가 여수 불교의 역사를 열었던 것이 중요하다. 보조지눌의 팔공산 거조암에서 도반들과 결사를 할 때 제자를 보내 여러 곳에 결사를 할 절터를 찾다가 1195년경에 직접 여수에 오게 된다. 처음 금오도의 굴봉산에서 토굴을 엮고 정진하다가 어떤 선인(神人)의 이끌음으로 지금의 영취산 홍국사 터에 도착, 결사의 터를 정하고 잠시 머물게 된다.

홍국사적기에 “이곳에 절을 지어 나라가 잘 되면 절도 잘 될 것이요, 절이 잘 되면 나라 또한 잘 될 것”이라는 선인의 말은 곧 이 절의 성격을 말한다. 그래서 홍국사(興國寺)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즉, 여수 불교의 성격과 지역에서의 역할을 말한 것으로 성인의 바른 법을 수행하여 정신이 바로 되고 그래서 백성이 반듯한 삶을 살면 곧 불교와 국가가 함께 부흥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수 불교는 대승의 호국불교로서 1195년 이후 800여년을 이어내려 온 것이다.

여수에 불교시대를 연 것은 홍국사의 개창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여수 불교 하면 홍국사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해 왔다. 국사께서 약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법당과 요사정도 갖추어진 조그만 암자로 창건했으며 국사께서 송광사로 옮겨가서 정혜결사를 할 때에 잠시 머물던 곳이었다.

국사의 열반 후에는 국사의 제자들이 머물렀는데 마치 광양 백운산의 백운난야와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과 조월암 등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수에서 특별히 법석이 열리거나 또는 경전이 강론되고 출판되는 등의 구체적인 불교 수행과 교화가 이루어 졌던 것은 아니고 수행자들이 깊은 삼매를 닦기 위해 머물던 수행처였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360여년을 흐르다가 홍국사 역사에 나타나는 인물이 법수(法修)대사이다. 사적기에 법수대사가 언급되나 그의 행장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560년경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부도에서 나온 청동사리함에 불일증휘보조국사라는 명문이 나온 것으로 보아 보조의 법을 이은 제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때까지 보조국사의 제자에 의해 홍국사가 고려와 조선을 이은 법의 수행처로 이어져 내려왔다.

## 제3절 임진왜란과 여수 불교의 역할

### 1. 의승수군의 조직과 활동



▲ 나라를 구한 의승수군 명단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은 여수가 조선 조정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명나라에도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여수를 격파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명나라 역시 조선을 방어하여 본토를 지키려면, 여수의 이충무공 수군본영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불행한 전쟁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여수와 수군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국제전 성격을 띤 임진왜란에서 여수를 주무대로 해서 승리한 것은 이 지역이 전략상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새삼 인식하게 해주었다. 고려시대에도 개성과는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성으로부터 먼 곳일 뿐이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여수에 군사가 더 많이 모이고 의지할 곳 없었던 백성들도 수없이 모여 여수 역사상 가장 발전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또한 홍국사 사적기에서 홍국의 이유와 같이 각 지역에서 의승수군(義僧水軍)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인 것이다. 구례, 곡성, 고흥, 광주, 광양, 순천, 남해 등지에서 1592년 가을에 400여명이 모였다가, 다시 이듬해 4월에 300여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이충무공의 전라좌수군에 편입하여 참전했다. 일부에서는 출가 승려들의 전쟁 참여는 모순이라고 하나, 당시 백성들이 정부와 관리들의 무능 때문에 전국에서 도륙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피할 수만은 없었다. 당시 전쟁에 나섰던 서산대사 역시 “승려로서 전쟁에 나서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듯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휘하의 7,000여 승병과는 다른 조직으로 보인다. 역사상 최초로 수군조직으로 승군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남해안과 호남지역의 불교세가 형성되어 불교가 뿌리 내리고 있

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불교지도자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의승수군의 첫 전투는 현재 사천의 웅천 전투에서부터였다. 이러한 기록은 이충무공이 조정에 보고한 장계문에서도 볼 수 있다. 의승수군이 자원부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식량, 의복 등 군수품들을 스스로 자급하여, 전투에 나섰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승려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좌수영 진중이 아니라 홍국사에서 모이고 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홍국사를 사적기에 의승수군 주진사(의승수군의 본부)라고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 7년의 전투를 같이 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의승수군은 이충무공의 승전과 함께 더욱 백성과 국가로부터 신망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루어진 홍국사의 대형 불사, 다른 지역의 승군들은 임란이 끝난 뒤에 해체되는 과정을 빠르게 겪었지만 의승수군은 조선의 운명과 같이하여 300여 년을 유지했던 점, 또한 임진왜란 이후 승직이 주어질 때 전국 승군 총대장인 팔도 도총섭이 홍국사에서 200여 년 동안 있었던 점 등이다.

홍국사에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말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북선과 전선 건조에 승군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에 큰 나무를 다룰 수 있던 대목(大木, 큰 목수)은 사찰을 짓는 승려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단청 등도 모두 승려들이 했다는 것이다. 당시 자운스님 등의 지식이 조선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

## 2.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 승장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산을 비롯한 사명, 영규, 중관, 해안 등 전국에서 7000명의 승병이 쫓기하여 평양성 전투, 해주대첩, 금산 전투 등 전장의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참전했다. 전라좌수영에서도 의승수군 300여명이 활동했는데, 모두 근교에서 모였다.

순천의 승대장 삼해스님은 시호별 도장으로 활약했으며 홍양(고흥)의 의능스님은 유격 별도장, 광양의 성휘스님은 우들격장, 광주의 신해스님은 좌들격장, 곡성의 지원스님은 양병용격장으로 활동했다. 승장 가운데 가장 유념해야 할 사람은 자운 윤눌과 벽암 각성이다. 자운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만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고, 벽암 각성은 그 행장이 분명하다.

자운 율눌은 화엄사 승려로서 당시 승과 가운데 교과인 화엄대선에 합격한 학자이다. 그의 법맥은 휴정·서산과 부휴 선수의 조선 양대 법맥의 스승인 부용 영관의 제자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서산대사와 부휴선수와 사형사제지간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 그의 위치가 교단에서 높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사형인 서산은 전국 승군대장으로 전투에 임했으며, 한분의 사형은 교단 내부의 일에 전념키 위해 전장에서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인 벽암 각성을 자운 율눌 휘하에 두었다. 뒤에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항복할 때 호남 승군을 이끌고 올라갔던 각성이 바로 임진왜란 때 자운의 휘하에서 해전에 참전했던 그 각성이었다.

자운은 18세의 어린 나이의 각성을 데리고, 화엄사 승병을 이끌고 홍국사에 집결, 여러 곳에서 온 승병의 대장이 되어 승군을 지휘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는 데도 전력하여 화엄사, 홍국사, 남원 실상사를 복구했으며, 수륙재를 국가 위령제로 지냈다.

### 3. 임진왜란 이후의 여수 불교

#### 1) 승병활동

임진왜란 이후 전국의 승병은 차츰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 원인은 승가 내부에서도 출가 본분과 위배된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조정도 승려들의 군사체제는 정권에 오히려 위협하다는 이유로 차츰 감소시키거나 해체시켰다.

그러나 호남의 승병을 이끌고 있었던 벽암 각성은 상당기간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여수의 의승수군은 1593년 4월에 창군된 이래 거의 300여년을 300명 승군을 유지했으므로 제일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1729년 봉황루가 중수될 당시 팔도 도총섭인 덕린스님과 300명 승군의 명단이 보이고, 1759년에 조성된 괘불탱화에는 일반 대중과 합하여 640명의 명단이 있다. 1779년에 세워진 『호좌수영 수성창설비』에는 승군 300명이 성을 보수한 기록이 보이고, 1780년 『선당수습상량기』에 승군 300명과 팔도 도총섭(전국 승군사령관) 응운, 봉순, 육만 스님 등의 명단, 1803년 『적묵당 중

창상량문』에는 효암 등의 팔도 도총섭과 승군 300여명으로 이어져, 1812년 『심검당증전상량문』에 292명의 승군명단이 보인다. 그리고 1914년에는 대중이 35명 정도로 줄었음을 볼 때 승군조직 역시 대체로 좌수영이 해체되는 1896년을 전후해서 같이 해체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들게 승군 300여명이 약 300여년을 유지했으며 다른 곳 승병조직이 해체되었을 때 의승수군에서 승군 총사령관격인 팔도 도청섭의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승군의 활동은 한국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며,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조선 수군의 본영인 여수, 그리고 승병의 주진사인 홍국사가 항상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흥미 있는 사실들은 울릉도 수비대장 안용복장군과 홍국사 승군과 깊은 연관관계이다.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과 상거래 등에 홍국사 승군의 배와 뇌헌 등 스님들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 2) 사찰 중창불사

여수불교는 홍국사의 제반 불사 내용과 같으며, 따라서 홍국사의 중창불사를 요약해 보면 그 성격과 규모를 알 수 있다. 홍국사 수군의 주진사가 되면서 300여 년 동안 크게 부흥했으므로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 불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조국사가 처음 1195년 터를 잡아 지은 집은 조그만 법당과 부처님 시종들 정도의 작은 요사가 있는 암자였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560년 법수대사에 의해 주변양전 즉, 부처님 모시는 법당과 스님이 살 요사를 마련하여 수행처로 삼았다.

이때는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요사가 전일보다는 더 컸던 것 같다. 1593년부터 홍국사에 300여명의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급격히 스님들의 기거처인 요사채가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승군의 훈련소 역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이 끝난 25년 후에 계특스님에 의해 현재 팔상전 정도의 대웅전이 중창이 되고, 선방과 요사, 그리고 범종이 주조되고, 홍교가 건립되는 등 불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654년 정문과 봉황대루가 지어지는데 이때 정문이라고 하는 건물은 현재



현판이 남아 있는 공복루인 것으로 추정된다.

1690년 통일스님에 의해 지금의 대웅전이 지어졌으며, 대웅전의 영산회상도 탕화와 흥국사 사적기를 제작하게 된다. 대웅전의 중창은 당시 승군과 일반대중이 600여명이 넘었고, 예불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건립된 것으로 보여 당시의 사세를 짐작하게 한다.

1729년에 팔도 도총섭인 덕린스님에 의해 봉황대루가 지금의 2배 정도 큰 규모로 중창되었으며, 1759년 수륙재 때 모실 괘불탱화를 도성암에서 모시게 된다. 대웅전의 중창과 괘불탱화의 조성을 수륙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

1779년에는 승군이 좌수영 성을 보수했으며, 1780년에는 선당중창, 1803년에는 적묵당 1812년 심검당 중창 등 임란이후 약 300여년에 걸쳐 약 30여채의 전각과 요사 약 20여개의 암자와 은적암, 한신사, 용문사, 석천사, 만홍사, 향일암등의 외곽암자들을 거느린 거대한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00여명의 승군과 340여명의 일반 승려들이 호국의 기치 아래 이충무공의 승전에 일역을 담당한 이래 호국의 불사들을 씬 없이 수행했다.

## 제4절 여수의 전통사찰

### 1. 흥국사

현재에 남아있는 암자는 도솔암 한 곳이지만, 흥국사는 한창 번창할 때인 1759년 괘불 탕화를 조성했는데, 당시 대중이 640여명이었다. 21개 전각과 10개 당우, 그리고 14개 암자가 있었고 6곳의 사찰을 거느렸다.

사람이 기거했던 당우는 동상실, 선당, 승당, 명월료, 해월당, 만월당, 용화당, 백련당, 심검당, 적묵당이었으며, 부처님이나 보살 등을 모신 전각은 극락전, 한산전, 보광전, 미타전, 영대전, 노전, 대웅전, 대지전, 법운전, 지공전, 회광전, 일현전, 월현전, 관음전, 약사전, 인월전, 구로전, 팔상전, 무사전, 조사전, 응진전 등 21채가 있었다.

영취산 안에 있었던 암자는 성도암, 지장암, 부도전, 안양암, 청계암, 연화대, 명적암, 금선암, 내원암, 안초암, 도솔암, 향운암, 영선암, 북암, 정수암,

청운암 등 16개 암자였다.

한편 좌수영 의승수군 관할의 사찰은 한산사, 석천사, 은적암, 향일암, 용문사, 금오도의 송광암 등 6곳이 있었다. 따라서 그 규모를 볼 때 큰 본사와 같은 사격을 갖추었다.

## 2. 석천사

덕충동 마래산 아래 위치한 석천사는 최초 창건이 보조국사라고 되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아마도 보조국사가 결사지를 찾을 때 금오도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금오도와 돌산군내 은적암, 그리고 석천사, 흥국사가 연결되는 육로선상의 국사 이동처와 연관 지어진 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근거 있는 창건연기는 임란에 참전했던 옥형스님과 자운스님이 임진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에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충무공이 전사하자 전우였던 교리 박대복 선생이 평소 이순신이 머물렀던 석천의 우물 앞에 재실을 지었는데, 옥형스님이 이순신장군 곁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충민사 곁에 초막을 지으니, 이것이 석천사의 시작이다.

이후 충민사와 석천사는 구분 없이 지냈는데, 석천사 주지가 충민사 수호 승장을 300여 년 동안 수행해 왔다.

일제강점기 때 옥형과 자운 스님의 영정을 일본인 경찰서장이 갖고 간 이후로 분실되었으며, 매년 3월 중순 정일에 두 사람의 창건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 3. 은적암

돌산읍 군내리 중봉산 아래 있는 은적암은 보조국사의 창건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보조국사와 그의 제자들이 수행했을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은적암 역시 임진왜란 이후 방담진의 군막 사찰로 승군들이 기거했음을 1656년 중창상량문에서 볼 수 있다. 1777년 다시 중건할 때 수군절제사 최도

민이 시주자가 된 것으로 보아 승군과 깊은 관계가 있다.

#### 4. 향일암

향일암은 원효와 의상 등 신라 불교와 연관이 있다는 전설이 있다. 이미 그 이전 김수로왕의 가야 불교와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전국 관세음보살 4대 기도 보궁이며, 이 지역 관음신앙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이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는데, 6가지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의미의 책육암, 관세음보살의 원만무애함이라는 원통암, 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금거북인 금오암, 또는 민간인들이 부르는 깨갯절이라고 한다.

지금은 암자가 바위 끝에 붙어 있다. 관세음보살의 탄생지인 보타락가신과 같고 그 방향이 동해의 해를 부처님 바라보듯이 본다하여 향일암이라고 했다.

#### 5. 한산사

한산사는 봉산동 구봉산 아래에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 『한산사증창서문』이 기록의 전부여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석천사와 한산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좌수영의 의승수군이 수행하면서 호국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찰이다.

#### 6. 용문사

화양면 용주리 마거산에 위치한다. 신라 창건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나, 확실치 않다. 용문사 역시 후대 의승수군에 의해 창건된 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5절 흥국사의 불교문화재

### 1. 건축

여수 고건축 기술의 핵심은 흥국사에서 비롯되었다. 대목장인 스님들에 의해서 조성되었는데, 현존하는 여수의 고건축은 진남관, 돌산향교, 오층사 등과 사찰들이다.

거의 승려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특히 진남관과 전라 좌수영의 보수 및 창건은 절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청, 기와 등에서 조각, 집의 결구 등까지 사원건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수 고건축의 대부분은 사찰 건물이며 특히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이 건축 기술의 핵심이다. 다포형식의 화려함과 규모의 웅장함, 금단청의 섬세함, 그리고 대웅전이 상징하는 반야용선의 상징 등은 그 창의성에 있어서도 매우 돋보인다.

그 이외 보물인 원통전, 팔상전, 나한전, 심검당, 봉황루 등의 건축은 임진왜란 당시부터 1,800년대 초까지 지어진 건물로 모두 문화재급이다.

### 2. 경판류

흥국사 의승수군이 종이를 주조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했는데 이는 인쇄를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민족이며 목판본 팔만대장경은 세계 유일의 정신문화 유산이다.

이런 인쇄기술의 발달은 경전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읽히게 했다.

여수에서 목판은 1,690년을 전후로 제작되었는데, 고급문화인 철학과 신앙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법화경, 금강경, 치문, 각종 수록재문, 천자문, 류합 등의 책을 인쇄하여 부처님 말씀과 문자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현재 흥국사에 대부분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여수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3. 회화

조선 문화의 회화사에 흥국사 탕화들은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보물 제578호인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1,693년 즉 대웅전이 지어진 지 3년 뒤에 의천과 천신스님 두 분의 화사가 그린 작품으로 17세기를 대표한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인 영산회상도는 부처님과 여섯 아라한과 4보살, 팔부신장, 분신불 등이 그려져 있다.

균형이나 채색 등에서도 매우 우수하여 한국 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물 1,331호인 괘불탱화 역시 수록재를 지내기 위해서, 1759년 도성암에서 13명의 화사가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비현과 쾌운스님이 주도로 그렸는데, 이들은 조계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스님들이다.

크기가 엄청나서 세로가 12m 정도, 가로가 7.34m로 압도한다. 상은 공덕신인 노사나불을 일존 형식으로 모셨는데 이는 수록재의 목적인 공덕 수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원통전 수월관음탱화와 보물 1,333호인 나한 탕화는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금어인 의겸스님에 의해 그려졌다.

1723년 의겸스님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점만으로도 주목받는 탕화이다. 이외에도 팔상전 영산회상도, 삼장탱화, 그리고 대웅전 고주후벽의 백의관음벽화 등은 여수가 가진 중요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4. 석조물

보물 563호인 홍교와 흥국사사적비, 호좌수영 수성창설비, 대웅전 축대 및 기단, 석등, 부도 등은 이 지역의 석질이 좋지 못해 섬세함은 떨어지나 그 대신 소박하고 친근감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부도전에는 창건주 보조국사 부도와 법수스님, 응운, 응암 등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흔적이 있다.

## 5. 기타

승군이 같이 독송했던 법화경 1권이 300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수록 재문, 전각의 보수 과정에서 나온 50여건의 상량문과 현판류 등 또한 이 지역 불교사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에도 여수 행정 구역 안에는 50여개의 사찰이 있다. 주요 사찰은 흥국사, 한산사, 향일암, 은적암, 용문사, 석천사, 달마사 등이 있으며, 2002년도 조사에서 여수인구 약 30만정도 일 때 22%정도인 약 66,000명의 신도와 승려 70여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불교에서 운영하는 사회 봉사시설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하얀연꽃, 소나무재가센터, 시니어클럽, 여수지역자활센터, 연꽃어린이집, 용달샘어린이집, 문수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 제 2 장

# 천 주 교

정 희 선 (청암대학 교수)



### 제1절 천주교의 전래과정

#### 1. 천주교와 한국 전래

천주교는 로마교황을 중심하는 가톨릭교회를 말한다. 가톨릭교회란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는 것을 칭하고, 110년경에 순교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그나티오스가 스미르나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천주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조선 후기이다. 임진왜란 때인 1594년 일본의 종군 신부였던 세스페데스가 내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승훈의 세례와 자생적 조선 교회의 창설이 가톨릭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1783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1785년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학회를 창건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신해사건(진산사건), 신유교난, 병오교난, 병인교난 등의 박해가 있었다.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자유로운 활동이 이뤄졌다.

2002년 현재 한국에는 420여 만여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천주교회의 교구 수는 서울·대구·광주의 3개 대교구를 비롯하여 모두 14개이다. 본당은 765개, 공소(公所)는 1,578개이다. 성직자는 대주교 3명(한국인)과 주교 14명(외국인 3명 포함) 이외 한국인 신부 1,298명, 외국인 신부 219명이다. 수도자는 수사(修士)의 경우 한국인 288명, 외국인 32명이며, 수녀는 한국인 4,869명, 외국인 198명이다.

## 2. 여수의 천주교 전래

여수의 천주교 전래는 이동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해 출신 이동관은 진주의 교우 집에서 영세를 받은 후 남해 상동면의 난음으로 이주, 이후 여수로 와서 이발소를 경영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당시 여수 지역의 천주교 신자는 이동관과 만성리 터널 공사 감독으로 온 일본인 온도고노 부부로, 순천의 저전동 성당의 정수길(요셉)신부가 여수에 와서 미사를 봉헌했다. 1930년 군자동에 위치한 2,772㎡ 대지와 건물을 확보했다.

1934년 이민두(李敏斗: 다테오) 신부가 부임하여 본격적인 전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신자 수가 늘어났다. 1941년 이민두 신부가 간첩 누명으로 옥고를 치르게 되면서 여수의 천주교 활동은 침묵을 지켰다.

여수의 천주교 전파를 위해 온 주요 신부를 보면, 광복 직후 신월리 미군부대 종군신부로 온 우프란치스코(Francis Woods:S.S.C), 1948년에 온 우바드리시오(Patrick Brandon:S.S.C), 1951년 10월 이민두 신부 등을 들 수 있다.

1956년 5월 15일 공화동 동산동성당, 1961년 9월 26일 서교동 영광중학교의 서교동성당, 1981년 2월 1일 쌍봉성당(선원동성당)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여서동과 문수동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과 더불어 신자 수도 증가했다. 1988년 2월 5일 문수동에 문수동성당, 1992년 11월 30일 신기동에 신기동성당, 2000년 8월 25일에는 미평동에 미평동성당이 설립되었



다. 그리고 울촌면 여흥리에 있는 울촌성당은 저전동성당과 조곡동성당의 관할의 공소로 출발, 1992년 6월 14일 울촌성당으로 승격했다.

이밖에도 여수에는 동산동·서교동·신기동·문수동·선원동·여천·울촌·미평성당 등이 있고, 2005년 기준으로 22,387명의 교인이 있다.

## 제2절 여수의 천주교회

### 1. 동산동성당

여수 최초의 성당 설립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수항성당(동산동성당 전 명칭)이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여수의 천주교 신자는 이동관과 아들 이남수, 그리고 그의 가족, 전술한 일본인 온도고노 가족이었다.

대구교구는 순천시 저전동성당 정수길 신부를 통해 군자동에 2,776㎡ 대지와 일본인 집을 구입, 1936년 6월 29일 경상남도 통영성당의 이민두 신부를 여수항성당 초대 신부로 발령했다. 이것이 동산동성당의 출발이다.

이후 동산동성당의 연혁을 보면, 1941년 이민두 신부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면서 성당은 박해를 당하였고, 1948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55년 성 골롬바노 수도회 소속 부 바드리시오 신부가 부임, 공화동에 5,619㎡ 대지를 매입하여 1958년 10월 준공식을 하였다. 1967년 3월 백합유치원 1학급을 여수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아 개원하였다.

1969년 5월 서교동성당과 함께 여서동 산100번지에 11,504㎡ 임야를 매입·조성하여 천주교 공원묘지로 사용했다.

이곳이 신시가지로 개발되면서 1989년 8월 봉두리 산190-6번지에 101,509㎡ 임야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2004년 9월 1일 제21대 전영 신부가 부임한 뒤 교육관 건립을 착수, 2005년 12월 1일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 수녀관 성심의 집을 축성하였다.

1958년 10월 건립한 성당 건물은 급경사 '八'자 지붕의 붉은 벽돌로 아일랜드풍 건물이다. 우뚝 솟은 종탑과 파란 함석의 뽕쪽 지붕으로 된 성당은 이 지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사제관, 교육관 등 큰 부속 건물이

들어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후보는 '평화의 모후'이다.

## 2. 서교동성당

동산동성당의 신자 수가 늘어 1961년 9월 26일 광주대교구에서 서교동성당을 설립했다. 서교동성당은 여수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본당이다. 초대 신부로 천노엘 신부를 임명, 설립 당시 신자 수는 약 750명이었다. 처음에는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보다가 1982년 10월 9일 지금의 성당을 완공하였다. 1972년 3월 15일 성모유치원을 개원하였다.

5,141㎡ 대지, 312㎡ 성전과 340㎡ 유대철교육관, 2학급의 유치원, 사제관, 수녀관, 사무실, 부속 건물 등을 갖추고 있다. 성당의 마당은 성모동산과 정원으로 꾸며져서 쉼터,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서교동성당의 후보는 '예수성심'이다.

## 3. 문수동성당

광주대교구 주관으로 1988년 2월 5일 문수동성당을 설립하였다. 초대 신부로 동산동성당에서 사목하던 박상수 신부가 부임하였다. 이후 성당 부지를 문수동 산2번지(현 위치)로 옮긴 후, 제3대 신혁 신부가 부임하여 1993년 2월 5일 성당 기공식 후 1996년 2월 12일 축성식을 하였다.

대지 5,943㎡, 1,177㎡ 성당, 1,516㎡ 교육관·본당·사무실등을 연결하여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에서는 교육과 공연·연극·음악회 등이 열리고, 교리실 및 식당인 교육관 지하는 무료 급식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후보는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이다.

## 4. 신기동성당

광주대교구 주관으로 1988년 10월 15일 선원동성당 신기공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0일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후 성전 건립을 위한 노력 끝에 1992년 11월 30일 완공, 축성식과 함께 신기공소가 신기동성당으로 승격되었다. 초대 신부로 안재윤 신부가 부임했다.

2,839㎡ 대지, 1층 560㎡ 성전, 지하 1,148㎡, 2층 147㎡의 교육관이 한동으로 건립되어 있다. 사제관, 수녀관, 사무실 등의 건물이 맞은편에 건축되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신자들의 만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보는 '성 안드레아 사도'이다.

## 5. 율촌성당

1992년 6월 14일 율촌성당이 출범했다. 연혁을 살펴보면, 1970년 순천시 저전동성당 과달루페회 나바로 신부가 214㎡ 대지를 매입, 장요셉 신부, 소요셉 신부가 1971년 6월 20일 공소를 설립,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1992년 6월 14일 율촌성당으로 승격하였다. 초대 신부로 이요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율촌면 가장리 846-1번지에 있는 율촌성당 중산공소는 1942년에 설립된 공소이다.

대지 1,676㎡, 316㎡ 성전, 147㎡ 사제관, 82㎡ 식당, 49㎡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중산공소는 1,325㎡ 대지에 1961년 지어진 132㎡ 돌집의 성전과 숙식 및 피정을 할 수 있는 330㎡ 부속 건물이 있다. 주보는 '사도 성 요한'이다.

## 6. 선원동성당

선원동성당은 1992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출범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0년 9월 29일 서교동성당 쌍봉공소로 출발, 1981년 2월 1일 쌍봉성당으로 승격, 1981년 9월 1일 성전 건립위원회가 구성, 1983년 6월 6일 성당 축성식을 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1992년 11월 30일 선원동성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지 1,709㎡, 442㎡ 성전, 340㎡ 교육관, 561㎡ 교리실, 사제관, 수녀관, 사무실 등의 부속 건물을 갖추고 있다. 성당 마당에는 성모동산과 신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교육관 지하 1층에는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

는 강당이 있어 각종 교육, 공연, 연극, 음악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주보는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이다.

## 7. 미평성당

미평성당은 2007년 5월 31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설립되었다. 초대 신부는 이옥수(도미니코)이다. 출범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예배를 보다가, 신자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교세가 커지자 2003년 2,721㎡ 대지를 구입하여 성당 건립에 들어갔다. 전술한 것처럼 2007년 5월 31일 성당 기공식을 열었다. 현재 성당, 강당, 회합실 등을 신축하였다. 주보는 '성 범 라우렌시오 앙베르'이다.

## 제 3 장

# 개 신 교

주 정 철 (여수그리스도의교회 목사)

### 제1절 한국의 개신교와 호남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호남지역으로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한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계통의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 신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 선교에 뜻을 두고 선교지를 모색하던 중 한국행을 결심한다. 그는 약혼녀에게 한국 선교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으므로 파혼을 선언하고 언더우드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그때가 1885년 4월5일 부활절 주일로 그의 나이 25세였다.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선교사의 소속 교단은 미국 북장로회였다. 북장로회와 북감리회는 공히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

를 추구했는데, 북감리회에서는 교육선교사로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의료선교사로 윌리엄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을 파견하였고 북장로회에서는 그 두 직책을 각각 언더우드와 앨런에게 맡겼다.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등 종파 간의 구별은 서구에서 유래했지만, '대한에 수교장로회' 나 그 안의 '통합측' 과 '합동측', 그리고 '고신측' 등 각 교단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미국 장로회는 남북전쟁 시기에 정치적 이유로 분열된 뒤 종전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분열된 상태를 유지했으며, 언더우드 등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익히면서 서투른 우리말로 전도를 시도하여 한국 도착 이듬해에 처음으로 '노도사' (盧道士)라고 불리던 노춘경(盧春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세례식이다. 이듬해 봄에 황해도 소래에서 서상륜(徐相崙)이 그의 동생 경조(景祚)와 다른 두 청년들을 데리고 상경,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았다.

언더우드는 복음 전파 외에도 교육과 사회개혁 운동 등을 전 방위적으로 펼치면서 통전적인 선교모형을 제시한 최고의 선교사였다. 특히 언더우드의 한국사랑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4대 12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로 처음 내한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의 기틀을 잡아주었고 한국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감리교회의 아펜젤러와 더불어 한국 YMCA 설립에도 공헌했다. 그는 실로 놀라운 열정으로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 업적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길이 보존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들이다. 그의 영향은 호남에도 교회를 세우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여수기독교사에도 그의 선교사역이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1885년 이 땅을 찾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사람 뿐입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주소서.”

호남지역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유적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서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되며 보존해야 할 귀한 신앙의 유적지이다.

## 제2절 여수의 개신교 전래

### 1. 장로교의 역사

스위스와 라인 지방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 전역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사용한다. 칼뱅은 그 자신과 제네바·스트라스부르·취리히, 그 밖의 지역의 동료들이 사용하던 교회 체제가 성서와 교회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것만이 유일하게 채택되어야 할 형태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칼뱅의 교회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모든 구성원은 그 아래에서 동등한 몸, 즉 공동체를 이룬다. 목회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교직자가 나누어서 담당한다.

모든 교직자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성도가 선출한다. 교회는 전체를 대표하도록 선출한 교직자·목사·장로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대개 교회에는 당회(堂會 session)·제직회·회계위원회가 있다. 당회는 장로·목사로 구성되며, 목사는 중재자인 의장을 맡는다.

노회(老會 presbytery)는 일정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사와 각 지역 교회에서 임명한 1명 이상의 장로로 구성되며, 목사의 안수·취임·파면·전출을 맡는다.

여수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150, 개혁측 60, 기타 25 등)는 교회의 수가 235개 교회로 가장 많다. 통합측이 그 뒤를 이어 180교회지만 합동측이 여러 개의 계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장 통합측이 실제로는 단일 교파로 가장 많은 교회수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장로교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20여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측 4개 교회, 재건파 3개 교회, 대신측 4개 교회, 개혁총연과 합정 및 보수 등의 교회가 10여 교회로, 총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열의 교회 수만 456개가 있다. 그러므로 여수는 장로교가 완전히 정착하고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 2. 감리교와 성결교의 역사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영국국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으로 오늘날에는 감리교회 형태로 세계 도처에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1784년에 '감리교감독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자치권을 지닌 교단으로 설립되었다.

이 교단 설립을 이끈 인물은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머스 코크로서, 이들은 웨슬리의 원칙에 따라 미국교회를 조직했는데, 정착이 이루어진 지역과 미개척지역의 현실에 맞추어 조직했다.

지역단위로 종구를 집행하는 감리교도들의 '속회' (屬會 class)가 조직되었고, 강력한 중앙기관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조직이 있어 순회설교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감독한 것이다.

1844년 노예제도 문제로 남감리회와 북감리회로 분열하는 바람에 성장이 일시 저지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두 교단은 교인과 재산면에서 급성장을 계속했다. 감리교가 점차 미국 중산층 개신교의 일반적인 양상을 닮아가자 내부에서 '성결운동' (holiness movement)이 발생하여 19세기말에 갈라졌다. 1939년 남·북 감리회가 재결합하고 그 후에도 더 많은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성결운동에서 비롯된 성결교와 오순절교회는 계속 독립교회로 남아 있다.

### 1) 감리교

감리교의 복음이 한국에 전파 된 것은 1885년으로, 감리교 아펜젤라와 장로교의 언더우드 두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초창기 한반도 선교는 선교지역의 분할이라는 네비우스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감리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일부와 황해도일부를 정하였다. 그리고 장로교는 호남 영남 황해도일부를 선교지로 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한국전쟁 이전에는 여수지역에 감리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가 1902년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했음을 기억할 때 감리교에게 역시 호남선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4후퇴 당시 미군 상륙용배 L.S.T.로 많은 이북의 피난민들 대부분 황해도 출신들이 여수에 6,000여명이 하선되어 정



착되고, 그 중에 70여명의 감리 교인들이 돌산읍 둔전리에 제단을 마련하고, 감리교 총리원에서 파송 받은 박성태 목사와 감리교인들이 둔전감리교회(현 돌산중앙감리교회)를 창립하면서 여수지방에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었다. 현재 15개 교회 정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2) 성결교

성결교는 중생(重生)·성결·신유(神癒)·재림(再臨)의 4중 복음을 주로 하고 불세례의 체험과 성결의 은혜를 강조한다. 19세기말 미국에서 J. 웨슬리의 완전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며 형성된 교파로서, 20세기초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성결운동과 맥을 같이 했다.

1901년 일본에서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한국 성결운동의 모체가 된 교회로서, 이곳에서 교육받은 김상준·김정빈이 1907년 5월 서울에 동양선교회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선교와 노방선교 등의 직접선교방식으로 선교했으나, 1922년부터는 교단잡지인『활천(活泉)』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문서 선교활동도 펼쳤다.

여수에 성결교회 복음의 역사는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성결교인인 박명오 장로가 여수에 가족과 함께 이사와 청과조합을 경영하였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성결교회가 없음을 알고 성결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모아 1949년 11월 22일 군자동 향교 옆에 셋집을 얻어 개척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여수에 성결교회의 시작이다. 성결교단의 교세는 7개 교회이지만 중대형으로 성장했다.

## 3. 기타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 순복음교 등) 교단

### 1)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18절의 교회 태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고, 그 이름은 모든 지역교회가 로마서 16장 16절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렀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주로 미국에 있고 특히 미국 중서부와 서부, 남부지역 등에서 교세가 크다. 각 지역의 개교회(個教會)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며,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장로와 집사, 그리고 1명 또는 여러 명의 복음전도자(목사)가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이들은 19세기 초 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운동, 특히 바턴 W. 스톤이 켄터키에서, 그리고 토머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이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으킨 환원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더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 사람들은 성서만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고, 『신약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정신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통일을 호소했다. 19세기 중엽, 예배 시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가 생겨나면서 1906년 이후 두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와 악기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교회(Christian church)로 구분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 『신약성서』의 환원운동정신에는 맥을 같이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선교 사업에 힘써 외국의 100곳 이상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를 학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30여 대학의 교양학부와 많은 고등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일 예배 특징은 매 주일마다 성찬예식을 갖는 것이며, 성서 외에는 어떤 신조도 갖고 있지 않다.

## 2) 침례교

침례교는 개신교회나 독립교단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교회 정치에서 회중교회 형식을 고집한다. 17세기에 청교도 개혁운동이 진행될 때 영국에서 2개의 침례교 집단이 등장했다.

이 두 집단은 신자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일반 침례교도의 기원은 1611년경 토머스 헬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런던에 세운 침례교회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1608년경 암스테르담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되돌아온 자들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본래 자기들을 지도하던 존 스미스의 신조를 따랐다.

특수 침례교는 1633, 1638년에 런던에 있던 독립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638년에 시작했다. 1750년 이후 감리교 부흥운동의 영향과 복음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 및 선교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성장했고, 윌리엄 케리의 주도로 1792년 영국 침례교 선교회가 조직되어, 케리는 그 선교회가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로 갔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독립적 침례교회들이 있는데, 침례교의 중심지는 독립국연합으로 그곳의 최대의 개신교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침례교는 신앙과 의식에 관한 권한을 넓게는 그리스도 안에, 좁게는 세례 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 3) 순복음교

순복음교는 오순절교회의 하나로 미국에서 1914년에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 교파에 속한다. 한국의 오순절교회 운동은 1930년대 중반 미국인 선교사 럼제이(M. C. Lumsey)의 입국, 일본에서 하나님의 성회를 접한 박성산(朴聖山) 등의 귀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느 편이 먼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성회의 선교는 8·15광복 후 1947년 체스넛(A. B. Chestnut) 선교사가 입국하고 1952년 동양선교부장 오스굿(Osgood) 목사가 내한하여 선교부를 정식으로 조직하면서 이루어졌다.

1953년에는 같은 오순절 교단인 기독교대한오순절회와 합동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란 명칭의 교파를 창설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순복음운동을 펼쳐 눈에 띄게 성장 하였으며, 그 이후로 교회 명칭에도 '순복음'이란 명칭이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중앙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사에 특기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고아원사업 및 농아 사업에 많은 열성을 쏟았다. 또한 미국 스프링필드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본부 및 기독교세계오순절협의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여수지역에도 한국교회의 분열의 아픔 속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과(합동)이 토착화되었지만, 계속하여 여수시에 복음화 사역을 위한 여러 교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10여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한국침례회는 4개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25여개 교회 등, 다양과 교단들이 여수성시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몇몇 교단들이 18여개 교회 정도로 나누어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여수시에 정착한 순수기독교교회(개신교) 수는 535개 교회이지만 미처 파악 되지 못한 교회들(노회나 총회가 무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면 550개 교회 정도가 지역복음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순수 복음주의를 이탈한 세력들의 수를 포함한다면, 대략 600개의 교회들이 여수시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4)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전세계 236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그리스도교로의 회복을 위해 성서의 가르침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름은 성서 이사야 43:10,11에 근거한 것으로 1931년 이래 이 이름을 사용해 오고 있다.

1870년대 초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앨러게이니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 중심 인물인 작은 성서 연구 그룹이 발족, 1881년에「시온의 워치타워 책자협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협회의 명칭을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로, 1909년경 이미 국제적인 규모로 전도를 했다.

현재 본부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으며, 236개 나라와 지역에서 평균 약 680만 명이 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1912년 미국 선교인 로버트 R. 홀리스터가 내한하여 전도가 시작되었다. 홀리스터의 성서 서적 번역 작업을 도운 강범식이 한국에서의 첫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한반도는 물론 만주에서도 전도 서적들을 배포했다.

1954년 8월 한국에서 대회 참석수가 1,245명, 지금은 약 12만 명에 이른다. 1952년 10월 30일「사단법인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기관으로 등록되었다.

1950년대에 두 명의 봉사자가 여수 지역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전과 활동의 기틀을 닦기 시작, 1980년 초부터는 남산동 지역에 여호와의 증인 집회 장소인 왕국회관을 건축했다. 현재는 10개의 회중(교회)이 6개의 자체 왕국회관을 사용하여 집회와 야외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수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수는 약 600여명이다.

## 제3절 여수 교회의 수난과 성장

### 1. 여수 교회의 수난

1910년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면서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무단정책을 실시하고 철저하게 탄압을 시작하였다. 언론기관을 폐지하고 전국 각지에 헌병과 순사를 풀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서적을 압수하고, 1911년 신 교육령을 발표하여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우민화,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고 창씨개명과 한국어 사용금지, 유교적인 사대사상을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정신 말살과 교회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정신 고취를 위하여 식민통치를 거부하자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기독교를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1938년 4월 25일 현재의 구례읍교회에서 제22회 순천노회(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이 포함) 정기노회(당시 노회장 오석주 목사)를 열었다. 총회의 신사참배가 잘못이므로 총회의 잘못을 상고하고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순천노회 총대들은 제30회 총회와 제31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합리화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독자적인 반대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수나병원(현 여수애양병원)에서 반대를 주도한 애양원교회(현 성산교회)손양원 목사였다. 1940년 9월 20일 전국적으

로 350여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비 검속되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해 11월15일 순천노회 관할목사 17명이 검거 되었으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한 목사로는 울촌면 애양원교회 손양원목사와 여수교회(현 여수제일교회) 김순배 목사 그리고 남면 우학리교회 이기풍 목사 등이었다.

## 2. 여수 교회의 부흥과 성장

1945년 광복 이후 여순사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 속에 여수의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에서도 성장과 부흥을 계속 하였다. 여수에는 여러 교단들이 함께 해 오고 있다. 다양함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여수시내의 주요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개혁국제) (개혁서울) (개혁광주) (합동) (개혁) (재건) (개혁총연) (합정) (고신) (대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그 대표적이다.

현재 여수시에 소속된 교회는 550여 교회로 신도 10만 명을 넘어선 도시인구 34%의 성시화 비율을 이루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신안군(36%) 다음이지만, 신안군은 작은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도시로서 복음화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라 할 수 있다.

## 제4절 여수 선교단체 연합기관들의 활동

### 1. 여수시교회연합회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교파나 교단과는 상관없이 사이비이단만 아니면 어느 교회든지 회원이 될 수 있는 여수시 기독교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다. 복음화를 위하여 목회자들의 정보교환과 더불어 기독교행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심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를 일 년으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회전방식을 채택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부장단에서 임원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연합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연합회 조직이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여수시교회연합회는 타 지역의 기독교 단체들보다는 훨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음도 모범적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결과일 것이다.

여수시가 통합됨에 따라 여수시교회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여천시목회자연합회와 여천군기독교연합회가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되어 2002년 2월 통합된 여수시교회연합회로 재 창립하였다.

초대회장으로 신용호 목사(여수동광교회)로 새롭게 조직된 여수시를 대표하는 기독교단체로 출범했다. 2008년 말 통계 550교회와 10만 성도로 지역 인구비율 34%가 넘는 복음화를 이루고 있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유치되어 복음박람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복음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여수시교회연합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목회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목회 정보 교환 및 지역 교회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초교파적인 단체로서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 교회 담임 목회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임원으로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인 협동총무 약간 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각 부장 1인, 분과위원장 1인, 분과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활절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등을 주최 주관하고 관·민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나누어져 있었던 때와는 달리 통합하고 난 후에 새로 조직된 여수시교회연합회는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개신교) 연합조직으로 실제로 목회자들로 구성된 임원조직은 종파를 초월하여 교회의 대형, 소형과 상관없이 연합체제를 잘 이루고 있는 기독교연합회라 할 수 있다.

## 2. 여수 YMCA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전국 YMCA운동에 여수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데, 1945년 11월 15일 여수교회(현 여수제일교회)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수 YMCA를 창립하고 (초대회장 유중섭장로 총무 문영규집사) 선출하였다.

1963년 대한 YMCA연맹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선구자적인 민간 지역운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1988년 광무동 916-12번지에 현재의 3층 건물을 건립하였다. 전인적 사회교육 활동의 장을 열고 청년, 주부, 직장인들의 클럽 활동을 통한 시민운동과 지역민들의 권익옹호와 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중계실 운영, 도·농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활협동운동, 청소년 문화 및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기독교 운동체로서의 일치와 평신도공동체 운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지역 연대 사업 등 빛과 소금되는 일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994-2001년 학동 사회교육관 운영, 2000-2002년 여수시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 2001년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등 YMCA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다. “어린이에게 꿈을, 청소년에게 미래를, 시민에게 공동체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단체는 약 2,000여명의 후원회원과 1만여 지역민이 여수 YMC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3. 여수 YWCA

YWCA는 1982년 5월에 여수에 창립 (초대회장 : 정숙자)되었다. 비교적 늦게 창립되었지만 여성활동, 청소년활동, 소비자상담실, 고령자 인재은행, 사랑의 호스피스운동, 장애우를 위한사업, 사회문제연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지원센터, 여성상담센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여서동 226번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 4. CBS

CBS는 1954년 첫 전파를 발사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전남동부지역에 2000년 11월 6일에 전남동부권 표준 FM방송 중계소를 개국(주파



수 102.1MHz, 출력 1KW)하였다.

2003년 6월 10일에 전남CBS(초대본부장 : 허미숙) 창립(주파수 102.1MHz, 출력2KW)개국되어 라디오와 TV방송으로 지역사회에 기독교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여수사무소(초대여수사무소장 : 최석곤장로)가 설치되었다. 지난 반세기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계층 간 갈등 해소, 남북 화해와 통일을 향해 달려온 CBS는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1970~80년대 공정한 뉴스와 예리한 분석으로 민주주의에 목말라하던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 자랑스러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CBS는 민족과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으로 여수와 전남동부지역에 또 다른 복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 제 4 장 원 불 교

최 세 중 (원불교 여수교당 교무)



### 제1절 원불교 교단

#### 1. 소태산大宗사의 깨달음과 원불교 약사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大宗사(圓覺聖尊 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의 대각(大覺, 깨달음)과 더불어 개교된 열린 시대의 새 불교로서 새 종교이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은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였다. 이 무렵 동양에서는 봉건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었고, 서양에서는 17·8세기 중상주의(重商主義) 시대에 번성하였던 식민주의가 부활하여 제국주의 시대가 출현하는 내외적 혼란기에 있었다.

소태산은 7세 되던 해에 문득 하늘을 보고 의심이 걸리어 우주 자연현상의

온갖 이치에 대한 깊은 의심과 경건한 사색에 잠기게 된다. 9세경부터는 우주의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선인과 악인, 생로병사와 희로애락,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등 인간세상의 온갖 일들에 대해 마음속에 큰 의심을 품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심을 풀어줄 산신을 만나고자 5년간을 산을 오르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참 스승을 찾고자 6년간의 고행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22세경부터 소태산은 산신이나 도사를 만나려는 생각이 다 부질없고 허망한 일이라 생각하여 차차 단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궤도를 차츰 잃어가고 '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때로는 우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송(呪誦)을 외우기도 하고, 무엇인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안타까움에 소태산은 더욱 답답해져 간다. 이 무렵 소태산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적 일체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입정(入定)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잦아지던 중 26세가 되던 1916년 4월 28일(원기 원년,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 소태산은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소태산은 20여년에 걸친 구도생활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은 바를 세상에 널리 펼쳐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낙원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류 문명의 미래를 예견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지도 강령을 새 종교의 개교표어(開教標語)로 정하였다.

소태산은 먼저 9인 제자를 회상 창립을 위한 표준제자로 정하고, 1917년(원기 2년) 저축조합을 창설하여 허례폐지, 미신타파, 주경야독, 문맹퇴치, 근검절약 운동 등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함께 인류 구제의 첫 교화의 장을 열었다.

1919년(원기 4년)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의 합성을 '개벽의 상두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영광의 해안 간척공사와 법인기도로써 영(靈)과 육(肉)을 쌍전(雙全)하고 공부(修道)와 사업(事業)을 병행하는 등 새 종교의 기본정신을 몸소 실행하여 종교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지향하였다.

소태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단창립을 위한 물질과 정신적 기초를 마련한 뒤, 전북 변산에 입산하여 봉래정사에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휴양과 보림공부를 계속하며 새 회상 창립의 교리와 제도 등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원기 9년)에 이르러 전북 익산시 신룡동에 총부기지를 정하게 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불법연구회』(1947년에 교명을『원불교』로 선포)라는 임시교명을 선포하게 된다.

대각 후 28년간을 교단의 창립발전과 제자들의 교화에 전 생애를 바쳤던 소태산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교단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였고, 원불교의 원경인『정전』의 집필을 마친 1943년(원기 28년)에 거연히 열반에 들었다. 일본은 소태산의 열반으로 더 이상 원불교가 연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탄압과 감시의 고삐를 풀게 된다. 하지만 후대 종법사(宗法師)들과 많은 후진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원불교는 현재 94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제2절 여수지역의 원불교

여수에는 원불교 여수교당(군자동)과 여천교당(학동), 이 두 교당을 중심으로 하여 교화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원불교 여수교당은 1965년(원기 50년) 3월 20일에 동산동 OK사진관 3층에 전셋집(1965~1968)을 얻어 교당을 마련하여 첫 교화를 시작하였고, 여천교당은 그 후 19년 뒤 여수교당 교도들의 염원으로 학동에 자리 잡게 된다.

### 1. 여수교당

여수교당은 40여년의 역사 속에서 고소동 교당(1968~1979), 군자동 한옥(1979~1997)의 시절을 거쳐 현재 교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김보현 초대교무(1965~1971)는 초장기의 바쁜 와중에 KBS 여수방송국에 출연하여 소태산 대종사의 법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곳에서 교화의 활력을 얻은 여수교당은 교당이 너무 좁아 고소동에 두 번째 교당을 구하게 된다. 고소동 교당(1968~1979)은 후원이 넓어 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이 '원불교는 극락이다' 라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이 당시에 교당에서는 유병덕 교수(원광대학교)를 중앙동 상공회의소에 초

빙하여 '현대와 종교' 라는 강연을 열어 여수시민들에게 종교와 원불교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대 김보신 교무(1971~1974)는 낙도지역 교회를 위하여 화정면 상화도 출장법회를 시작하여 100명의 주민이 법회를 보기도 하였고, 3대 유향원 교무(1974~1981년)는 어린이 법회를 조직함으로써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에 걸쳐 모든 세대가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대 박정묵 교무(1981~1986)는 청년들의 교당활동을 왕성하게 이끌었고, 학동에 자리잡고 있는 여천교당을 창립하는데 열심을 다하였다.

5대 이선중 교무(1986~1995)는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도회를 열어 '시 지정 다도의 집'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가훈전시회, 가야금 교실, 청소년을 위한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이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한 도올 김용옥 교수 초청 사상강연회는 여수지역 뿐 아니라 광주 등지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강연장인 시민회관을 가득 메웠으며, 이런 행사는 양현수 교무(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의 '흥국사를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의 승수군' 강의, 김준 새마을 원장의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로 이어져 시민과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1988년 5월 5일에는 제 1회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여수대학교(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15,000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진남제 기간에 있었던 가장 큰 행사가 되었고, 제 3회부터는 진남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진남제 행사로 들어올 것을 종용받아 허락함으로써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진남제 행사의 일환으로도 행해졌었다. 올해로 이 행사는 22회를 맞는다.

6대 진문철 교무(1995~2001)는 많은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 교도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하여 지금의 여수교당을 신축 봉불하는 대업을 이루어냈다. 이어서 신축교당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교실(교전읽기, 한춤, 장구, 노래교실, 고경 강의)을 열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7대 최세중 교무(2001~2008)는 교당내 단체(봉공회, 청운회, 여성회)를 활성화하고, 교도들과 더불어 각종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불우 이웃 돕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원불교인으로서 일원의 교법을 널리 실천하였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최세종 교무의 주관으로 박병종 군수, 김성곤 국회의원, 오현섭 여수시장, 이상을 집행위원장, 강진원, 성해석, 송재향, 최대식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의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방송 3사(MBC, KBS, SBS)에 소개되어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에는 교도들이 합심하여 여수시에서 주최하는 전국체전에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였고, 여순사건 60주년 위령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수교당 교무는 8대 이전원 교무(2009)다.

## 2. 여천교당

여천교당은 여수교당 박정묵 교무와 교도들이 뜻을 합하여 쌍봉면 학용리 43-9에 건립중인 김정일 교도의 이층 일부인 28평을 법당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1983년(원기 68년) 12월에 교당을 완공하여 다음 해 2월 정하익 초대교무의 부임으로 1985년(원기 70년) 6월 6일에 2백여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주위환경의 변화로 교당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새로이 신축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위치한 학동 10-9번지에 교당을 신축하고 여천지역에 일원의 법음을 전하였다.

2대 이형덕 교무, 3대 김유현 교무, 4대 유세명 교무는 교화 활성화를 위해 교당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고, 5대 이법전 교무는 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법당 및 생활관과 2층 어린이 법당을 증축하였다.

6대 김윤진 교무는 여수 노인전문요양원 봉사활동 및 여수지역에 원불교를 알리는데 전교도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전교도가 마음공부로 단련하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 마음공부 전법자가 되어 소태산의 교법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록도 봉사활동, 보은바자회, 환경캠페인 실천, 여수시 시민합창제 참석 등 여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다.

## 제 5 장

# 기타 종교

정 희 선 (청암대학 교수)



## 제1절 통일교

### 1. 통일교 역사

통일교(統一敎)는 1940년대 문선명 총재가 창시한 기독교계 신흥 종교로, 주요 경전은 '원리강론'과 '천성경' 등이다. 원리강론은 문 총재가 1951년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집필했다. 경전이 집필된 이후 6·25전쟁 중인 1952년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54년 5월에는 서울로 교단의 기반을 옮겨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를 창립했다. 1958년에는 전국에 선교사를 파견해 각 지방별로 교회를 창립했다. 같은 해 일본에도 선교사를 파견했으며 다음해인 1959년에는 미국에 선교사를 파견했다.

1965년에 문 총재가 직접 세계 40개국을 순방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통일교회가 설립됐다. 현재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 교회가 설립되어 400만명의 신도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종교가 정착하기 어려운 북한 평양에 교회를 완공하기도 했다.

통일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원죄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꼬임에 빠져 사과(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석한다. 이 구절을 통일교는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뱀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아담과 해와를 부부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해와가 타락한 천사의 꼬임에 빠져 음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연히 원죄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음란으로 귀결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부모(하나님)와 자식(인간)의 관계로 해석하여 전 인류는 하나의 형제이며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교리를 성립한 것이다. 통일교의 순결운동, 전 세계 평화운동, 교차 축복결혼식(서로 다른 국가간의 결혼) 등이 이러한 원리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당시의 ‘부모-자식’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2. 여수에서의 통일교 발전사

여수에서의 최초의 포교 활동은 양준수 목사에 의해서이다. 전국적으로 포교활동이 왕성하던 1960년 7월 1일 양준수 목사는 여수에 처음으로 파견되어 돌산읍 죽포리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여수시 수정동에 여수교회(현 동여수교회)가 세워져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여천시의 형성과 함께 신기동에도 여천교회(현 서여수교회)가 세워져 여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9년 돌산교회가 폐쇄됨으로써 현재는 동여수교회와 서여수교회 2개의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도 수는 약 2,000명이며 이외 교회의 외곽 단체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



## 제2절 SGI

SGI는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불법을 올바르게 계승해 불법(佛法)의 근본 이념인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면서,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가번영과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이다.

세계 192개국 지역에서 활동중인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국제 창가학회)의 1975년 결성되었다. 한국SGI는 불법을 근본으로 평화·문화·교육 운동과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64년에 입회한 안남식을 중심으로 신도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1977년 5월 남산동에 전남총합본부 사무실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고, 현재에는 둔덕동 552-7번지에 한국SGI 여수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다.

평화·문화·교육 운동의 부흥을 통한 인간미 넘치는 사회 구축을 염원하는 한국SGI는 국토 대청결운동, 도서기증, 헌혈운동 등의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약4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제3절 증산도

1902년 강일순(姜一淳)이 개창한 종교이다. 동학, 대종교와 함께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후천 개혁을 주장한다.

1989년경 포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도장은 증산도 종도사의 지시에 따라 1989년 최정환 등이 신기동에 설립하였다. 그 후 둔덕동, 문수동으로 이전하였으며, 2009년 현재 오림동 396-4번지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가나 지역 사회에서 천제를 봉행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낙태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사상을 되찾기 위한 낭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